

# 基礎漢文文法

## 1. 品詞

‘品詞’는 낱말을 그 성질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눈 것, 즉 어휘를 문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衣는 명사로 ‘옷’도 되지만, ‘(옷을)입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단, 품사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의 풀이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법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實辭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虛辭가 있다.

### 1) 實辭

실제 뜻을 지니고 있는 實辭에 속하는 품사는 다음과 같다.

#### 가) 名詞

사람이나 사물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사는 문장에서 모든 성분이 된다.

#### 보기

① 歲去人頭白 秋來樹葉黃.

[세월이 가니 사람의 머리가 희어지고, 가을이 오니 나뭇잎이 누렇게 되는구나.]

② 人皆可以爲堯舜.

[사람은 모두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 (가) 명사의 동사적 활용

한자의 뜻이 확장되면서 명사가 때로 동사처럼 활용된다.

보기

① 范增數目項王.

[범증이 여러 차례 항왕에게 눈짓을 했다.]

(명사 뒤에 명사가 목적어로 뒤따라 온 경우)

② 子謂公冶長可妻也.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해 말씀하시길 ‘사위 삼을 만하다’고 하셨다.]

(명사 앞에 기능을 나타내는 ‘可’의 조동사가 온 경우)

③ 勇士入其大門, 則無人門焉.

[자객들이 그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보니, 곧 그 곳에 문을 지키는 자들이 없었다.]

(명사 뒤에 焉(=於是)이 따라 온 경우)

(나) 명사의 부사적 활용

한자의 뜻이 확장되면서 명사가 때로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기

① 吾得兄事之.

[나는 그를 형처럼 섬길 수 있다.]

② 庶民子來.

[백성들이 자식처럼 왔다.]

③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

나) 代名詞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대명사로는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의문대명사로 나뉜다.

- 인칭대명사: 1인칭- 吾·我·余·予·朕 등  
2인칭- 汝·子·爾·若·乃 등  
3인칭- 之·其·彼·夫 등
- 지시대명사: 是·此·彼 등
- 의문대명사: 誰·孰·何·胡·安 등

보기

① 吾爲子先行.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앞서 가겠다.]

②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안연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이와 같다.”하였다.]

③ 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④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⑤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백성이 또한 그의 즐거움을 즐긴다.]

⑥ 好人之惡 惡人之好 是謂拂人之性 菑必逮夫身.

[남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이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사람의 성품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자는)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⑦ 彼一時 此一時也

[저것도 한 때요, 이것도 한 때이다.]

⑧ 處世若大夢 胡爲勞其生

[세상살이 큰 꿈과 같으니, 어찌하여 자신의 삶을 수고롭게 하는가?]

⑨ 燕雀安知鴻鵠之志哉

[제비와 참새가 어찌 큰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 대명사의 특수 용법

(1) 或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긍정의 뜻을 담아 ‘어떤 것’, ‘어떤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보기

或爲大人, 或爲小人.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된다.]

## (2) 莫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부정의 뜻을 담아 ‘어떤 것도 없음’, ‘어떤 사람도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보기

① 養心莫善於寡欲.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어떤 것도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② 存乎人者 莫良於眸子.

[사람을 살피는 것 중에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다) 數詞

사물의 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보기

① 四十而不惑.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다.](基數)

② 宣祖, 德興君第三子也.

[선조 임금은 덕흥군의 셋째 아드님이다.](序數)

\* 수사(數詞)가 동사 앞에 쓰이면서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보기 一戰即勝. [한번 싸우면 이긴다.]

\* ‘一’은 생략되기도 하여 양사가 단독으로 명사 앞에 올 수 있다.

보기 斗酒不辭. [한 말 술도 사양하지 않는다.]

## 라) 動詞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自動詞: 동작과 변화를 나타내되 사물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동사-坐, 開, 飛 등
- 他動詞: 동작과 지각활동을 나타내며 사물을 대상으로 삼는 동사-敬, 愛, 讀 등
- 判斷動詞: 성질 · 판단 · 시비 · 有無 · 異同을 나타냄-有, 無, 是 등
- 使役動詞: 사물을 어찌어찌하게 만드는 품사
- 被動動詞: 사물이 어찌어찌하게 되는 품사
- 助動詞: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보기**

- ① 坐於堂上. [당 위에 앉다.]
- ② 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 ③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능할 수 있다.]

**(가) 被動 用法**

피동 용법은 문장 내용상 해당 동사가 ‘~을 당하다’는 뜻이 없지만, 문맥상 이러한 의미를 첨가해야 하는 용법이다.

**보기** 狡兔死, 走狗烹.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진다.]

**(나) 被動 句文**

被動을 나타내는 ‘被, 見’과 같은 助動詞가 동사 앞에 와서 피동의 구문을 만든다. ‘爲~所~’의 구문 및 ‘동사 + 於(于, 乎) + 목적어’의 구문은 ‘~에게 ~을(를) 당하다’는 피동의 뜻을 갖게 한다.

**보기**

- ① 被虜於百濟. [백제군사에게 사로잡혔다.](‘被’가 쓰인 경우)
- ② 貞祥見禍 其善未熟.  
[곧고 선한 사람이 재앙을 입는 것은 그 선이 아직 익지 않은 때문이다.](‘見’이 쓰인 경우)
- ③ 無其實而有其名 鬼神惡之 雖有其實 自暴於外 則爲人所怒.  
[그 실상이 없으면서 그 이름만 있으면 귀신도 그를 미워하고, 비록 그 실상

이 있더라도 스스로 밖에 드러내면 남들이 성낸다.]

(‘爲 ~ 所 . . . ’의 구문이 쓰인 경우)

④ 故有備則制人, 無備則制於人.

[그러므로 준비가 있으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준비가 없으면 상대에게 제압을 당한다.] (동사 + 於(于, 乎) + 목적어’의 구문이 쓰인 경우)

(다) 使動 用法

사동 용법은 동사가 목적어와 결합해서 ‘~을 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때 목적어 앞에 온 명사나 형용사 등은 모두 동사로 轉成한다.

보기

① 舍相如廣成傳舍.

[인상여로 하여금 광성 전사에 머물게 했다.](명사→동사)

② 縱江東父兄 憐而王我, 我何面目見之.

[설령 강동의 어른들이 나를 동정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명사→동사)

③ 匠人斲而小之, 則王怒.

[목수가 깎아서 작게 만든다면 왕께서는 화를 내실 겁니다.](형용사→동사)

(라) 使動 句文

사동을 나타내는 ‘使, 遣, 教, 命, 令, 俾’와 같은 조동사가 동사 앞에 와서 使動의 구문을 만든다.

보기

① 使人守之. [사람을 시켜서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② 王遣庾信率步騎一萬据之.

[왕이 유신을 시켜 보병과 기병 1만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것을 막게 하였다.]

③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항상 시비 소리 귀에 이룰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④ 癡覆天下 貪令不見 邪疑却道 苦愚從是

[어리석음이 천하를 덮고, 탐욕은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 (마) 동사의 명사적 활용

한문의 문장에서 동사는 자주 명사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탐하여 인을 해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동사의 명사적 활용)

### (바) 동사의 특수 용법: 助動詞

(1) 能, 可, 得, 足, 克: ~할 수 있다

可能을 나타내는 助動詞이다.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또는 動詞類 앞에 위치하여 그 동사 또는 동사류의 작용을 보조해 주는 특수한 동사이다. 조동사는 혼자 독립되어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동사 위에 얹혀서 그 동사와 더불어 하나의 성분이 된다.

**보기**

① 英雄豪傑有建功於世者 多不能保其終

[영웅·호걸로 세상에 공을 세운 사람 중에 그 끝을 보전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많다.]

② 豈可是己而非人?

[어찌 자기를 옳다고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③ 待客不得不豐 治家不得不儉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풍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안을 다스림에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④ 機裡藏機 變外生變 智巧何足恃哉

[기틀 속에 기틀이 감춰져 있고, 변화 밖에 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와 기교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2) 欲, 願: ~하고 싶다

원하고 바람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보기**

① 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② 顏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안연이 말하기를 “잘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과시함이 없고자 합니다.”하였다.]

(3) 當, 可: ~해야 한다

보기

① 汝當見金如石 [너는 마땅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여야 한다.]

② 子曰 後生可畏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후배는 두려워해야 한다.”하셨다.]

(4) 請, 幸, 謹, 辱, 敬, 恭

높임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보기

① 大王亦幸赦臣. [대왕께서는 또한 저를 용서하시었습니다.]

② 謹諾. [알았습니다.]

③ 太子辱在此. [태자께서 여기 오시었습니다.]

마) 形容詞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

① 月明. [달이 밝다.]

② 天下之水, 莫大於海.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가) 형용사의 의동 용법

형용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의 목적어가 올 때 ‘~라고 생각하다/여기다/삼다’는 뜻을 가지며, 그 형용사는 동사로 轉成하게 되는 용법이다.

보기

(螳螂)怒其臂以當車轍 不知其不勝任也 是其才之美者也 戒之慎之

[(사마귀가) 그 팔을 높이 들고 수레바퀴를 감당하는 것은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재주가 아름답다고 여기는(뛰



어나다고 믿는) 자로, 경계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 (나) 형용사의 명사적 활용

한자의 뜻이 확장되면서 형용사가 명사처럼 활용된다.

#### 보기

- ① 勤爲無價之寶. [부지런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 ② 慎是護身之符. [신중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 바) 副詞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범위·시간·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정도부사: 極, 最, 尤, 甚, 益 등
- 범위부사: 皆, 偏, 獨, 徒, 惟 등
- 시간부사: 方, 既, 將, 今, 昔 등
- 부정부사: 不, 弗, 未, 莫, 勿 등

#### 보기

- ① 盛則衰 極盛則敗 此天理也 無可逃者

[성하면 쇠하는 것이니, 지극히 성하면 패망하는 것은 천리여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靑城雜記』]

- ② 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 ③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뜻이 섬과 얹이 밝음과 행실이 도타움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다.]

- ④ 古云 知得一分 行得一分 徒言而不行 言何能中理乎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가지를 알면 그 한 가지를 행해야 한다.” 하였으니, 다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이 어찌 이치에 맞을 수 있겠는가? 『湛軒書』]

- ⑤ 養子方知父慈.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⑥ 不知老之將至.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 2) 虛辭

‘虛辭’는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재적이지 않고, 實辭에 붙어서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허사는 그 주된 기능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다음과 같다.

### 가) 介詞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명사류와 어울려 ‘개사 + 보어·목적어’의 구조를 이루어, 보통 서술어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의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 (1) 於(=于, 乎)

名詞類 앞에 위치하여 처소, 대상, 시간,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낸다.

#### 보기

① 月出於東天. [달은 동쪽 하늘에서 뜬다.]

②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의롭지 못한데도 부유하고 또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뜬 구름과 같다.]

③ 日落於西山. [해는 서산으로 진다.]

④ 勞力者, 治於人. [힘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⑤ 一年之計, 在於春. [일 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다.]

⑥ 霜葉紅於二月花. [서리 맞은 잎이 이월의 꽃보다 붉다.]

⑦ 百川異源 而皆歸于海.

[온갖 시냇물이 근원은 달라도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⑧ 天地之間 萬物之衆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에게 다섯 가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2) 以

주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등의 뜻을 나타낸다.

보기

- ① 臣事君以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
- ② 王待吾以國士.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 ③ 弟以其一與兄. [아우가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다.]
- ④ 不以成功自滿. [성공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라.]
- ⑤ 子曰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기쁨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 ⑥ 孟嘗君以五月五日生.

[맹상군은 5월 5일에 태어났다.](以+시간: ~에)

\* 일반적으로는 명사류 앞에 위치하나 강조의 의미를 덧붙일 경우 명사류 뒤에 놓이기도 한다.

보기

- ① 吾道一以貫之. [내 도는 하나로써 그것을 꿰뚫는다.]
- ②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군자는 큰 도가 있으니, 반드시 충과 신으로써 그것을 얻고 교만함과 방자함으로써 그것을 잃는다.]

\* 속어형태로 활용되기도 한다: ‘以A爲B’- A를 B로 삼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보기

- ① 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토대로 삼는다.]

- ② 夫以貴爲福者 位替則賤 以富爲福者 財盡則貧.

[대저 귀함을 복으로 삼는 경우에는 지위가 바뀌면 비천하게 되고, 부유함을 복으로 삼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지면 가난하게 된다.]

(3) 自·由·從: ~부터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동작의 起點을 나타낸다.

보기

① 自初至終. [처음부터 끝까지.](至는 ‘~까지’)

② 自老視少 可以消奔馳角逐之心.

[늙음으로부터 젊음을 견주어보면 바빠 달리고 다투고자 하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③ 病從口入, 禍從口出.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④ 人之過失 多由言語.

[사람의 과실은 말로부터 나온 것이 많다.]

(4) 爲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목적·원인·대상 등의 뜻을 나타낸다.

보기

① 不爲酒困. [(공자는) 술 때문에 곤란하게 되지 않으셨다.]

② 爲人謀而不忠乎? [남을 위하여 도모하는데 충성하지 않았는가?]

\* 그 외 爲의 虛辭 용례

- 부사로서 머지않아 발생하는 행위, 상황을 나타내며, 동사 앞에 쓰이고, ‘바야흐로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한다.

樂正子見孟子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악정자가 맹자를 뵈고 말하였다. “제가 人君께 아뢰니, 인군께서 와서 뵈려고 하였습니다.”]

- 접속사로 가설을 나타낸다.

孫叔敖戒其子曰 爲我死 王則封女 女必無受利地.

[손숙오가 그 아들에게 훈계하기를 “만약 내가 죽으면 왕께서는 너를 봉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좋은 땅을 받지 말라.”]

- 의문이나 반어문을 나타낸다.

何故深思高舉 自令放爲.

[무슨 까닭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쫓겨났습니까?]

## 나) 接續詞

### (1) 以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며 주로 순접으로만 쓰인다.

#### 보기

①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力行以踐其實.

[경에 있으면서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연구하여 선을 밝히고, 힘써 행하여 그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

② 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能盡守.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만은 없다.]

### (2) 而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며, 順接일 때와 逆接일 때가 있다.

#### 보기

① 薄施厚望者不報 貴而忘賤者不久.

[조금 베풀고서 후하게 바라는 자는 보답이 없고, 귀해지고서 천했던 때를 잊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순접)

② 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역접)

### (3) 且 · 與 · 及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 보기

①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의롭지 못하면서 부하고 또 귀함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③ 是日曷喪? 予及汝偕亡.

[이 해는 언제 없어질까? 나와 네가 함께 망하자!]

(4) 則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되, 주로 조건인 ‘~면’의 의미로 쓰인다.

보기

① 水至清, 則無魚.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②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만약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다) 語助辭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語氣 곧 말의 느낌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1) 也, 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판단이나 확인의 語氣를 나타낸다.

\* 也

孝, 百行之本也. [효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다.]

久住令人賤 頻來親也疎.

[오래 머무르면 좋은 사람도 천해지고, 자주 오면 친한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문장 가운데에서 주어·부사 등을 강조하거나, 停頓의 역할)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안연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이와 같다.”하였다.] (疑問詞와 결합될 경우 의문의 역할)

\* 矣

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德微而位尊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

[덕은 미미한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는데 꾀가 크면, 재앙이 없을 경우가 드물 것이다.]

人之視己 如見其肺肝然 則何益矣.

[남들이 자기를 보기를 자신의 폐와 간을 보듯이 할 것이니, 그렇다면 무슨 유익

함이 있겠는가? (疑問詞과 결합될 경우 의문의 역할)

\* 也와 矣는 용법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야는 여와 서로 차이가 천리가 된다: 也之與矣, 相去千里(『淮南子』)”는 말처럼 구별하자면, 也는 靜的이고 사실을 확인하는 판단구에 쓰이며, 矣는 動的이고 상황을 반영하는 서술구나 묘사구에 쓰인다.

(2) 已, 焉 = 也, 矣

보기

①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백성과 같은 사람은 항상 된 생산이 없으면 항상 된 마음도 없다. 만약 항상 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움을 하지 아니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② 子貢問友 子曰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無自辱焉.

[자공이 친구에 대해 묻자, 공자에게서 말씀하시길 “충심으로 말해주고 잘 그를 인도하는데,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자신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하셨다.]

(3) 乎, 哉, 與(歟), 耶(邪)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疑問이나 反語의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①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②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豈可他求哉.

[뜻이 서게 되고 아는 것이 밝아지며 행실이 돈독해지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③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慎與.

[나라의 임금의 어진이를 진급시킬 때 어쩔 수 없는 것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생소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한 사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④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그래서 성인은 그 몸을 뒤로 하지만 몸이 앞서게 되고, 그 몸을 내버려 두어도 몸이 간직되는데, 그것은 그에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4) 哉, 矣, 夫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① 君子哉! [군자로구나!]

② 甚矣! 吾衰也 [심하구나! 나의 쇠함이어.]

③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공자께서 시냇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길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천지의 조화가 그침이 없음을 의미).”하셨다.]

(5) 耳, 耳矣, 爾, 而已, 而已矣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한정어 어기를 나타낸다.

보기

① 直不百步耳.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다.]

② 人之易其言也, 無責耳矣.

[사람이 그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일 뿐이다.]

③ 勝己易 勝人難 勝己在我 勝人在人爾.

[자기를 이기기는 쉽고 남을 이기기는 어렵다. 자기를 이기는 건 나에게 달려 있고 남을 이기는 건 남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④ 爲善是受福之道 君子強爲善而已.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니, 군자는 힘써 선을 행할 뿐이다.]

⑤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선생님의 도는 충서뿐이다.]

(6) 之

동사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조사로 쓰일 때는 주로 ‘수식어 + 之 + 피수식어(～의, ～하는)’, ‘주어 + 之 + 서술어(～은, 는, 이, 가)’, ‘목적어 + 之 + 서술어(～을/를)’의 구조로 쓰여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보기

① 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②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也.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③ 天命之謂性.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7) 者

‘수식어 + 者’의 구조로 쓰여 사람(人과 者는 둘 다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人은 단독으로 ‘사람’의 뜻을 지니나 者는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만 ‘사람’의 뜻을 지님)이나 사물을 나타내거나, ‘명사 + 者’의 구조로 쓰여 제사·정돈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보기

① 仁者, 不憂.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②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대인은 그의 갓난아이 때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③ 古者, 易子而教之.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8) 所

한문은 기본적으로 앞의 글자가 뒤의 글자를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所만은 ‘所 + 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뒤에서 所를 수식하여 ‘~하는 것, 곳,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보기

① 知所先後 則近道矣.

[먼저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②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침에 있어 그 그칠 곳을 아니, 사람으로서 새만 못해서야 되겠는가?”하셨다.]

(9) 夫

구의 첫머리에 쓰일 때 의논하려 함을 나타내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지하는 바’의 의미를 가 지나 풀이할 필요는 없다.

보기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라) 感歎詞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於(오), 惡(오), 嗚呼(오호), 於戲(오희), 嗟乎(차호), 諾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기

- ① 嗚呼! 哀哉! [아! 슬프도다!]
- ② 惡! 是何言也? [아! 이 무슨 말인가?]
- ③ 諾! 吾將問之. [예! 제가 장차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 ④ 噫! 天喪予! [아!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 2. 漢文 文章의 理解

### 1) 漢字語 종류와 짜임

漢字語는 漢字로 이루어진 말로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한자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單純語와 複合語로 나뉘는데, 단순어는 하나의 의미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단순어에는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單音節 단순어와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多音節 단순어가 있다. 복합어에는 실질 의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合成語와 실질 의미 요소에 부가 의미 요소가 붙어서 이루어진 派生語가 있다.

보기	단순어	단음절 단순어 : 羽, 冠 다음절 단순어 : 堂堂, 亞細亞
	복합어	합성어 : 休息, 將軍 파생어 : 孔子, 卓子

‘한자어의 짜임’은 한자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한자어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어떤 기능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자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 관계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한자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자어의 짜임을 학습할 때에는 용어나 상호 관계를 도식적으로 강조하는 식의 문법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가) 主述關係

主語와 敘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 즉 행위,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 새기는 순서는 주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는 나중에 새긴다.

보기

1 2

- ① 夜深 [밤이 깊음]
- ② 人造 [사람이 만듦]

(나) 述目關係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보기

2 1

- ① 好學 [학문을 좋아함]
- ② 立志 [뜻을 세움]

(다) 述補關係

서술어와 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새기는 순서는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보기

2 1

- ① 難航 [항해하기가 어려움]
- ② 多濕 [습기가 많음]

(라) 修飾關係

修飾語와 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새기는 순서는 수식어를 먼저 새기고, 피수식어를 나중에 새긴다.

보기

1 2

- ① 貴賓 [귀한 손님] (명사류 수식)  
수식어+피수식어
- ② 小食 [적게 먹음] (동사류 수식)  
수식어+피수식어

(마) 竝列關係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이에는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보기

1 2

- ① 雌雄 [짐승의 암컷과 수컷, 우열을 뜻함] (서로 상대되는 의미)
- ② 高低 [높고 낮음]
- ③ 考慮 [생각함] (서로 비슷한 의미)
- ④ 均等 [고르고 차별이 없음]

2) 文章의 構造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과 성분들 사이에 결합되어져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문장의 구조를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主述 構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술구조의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이 되는 성분이며,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보기

- ① 雪白. [눈이 희다.]
- ② 吾鼻三尺. [내 코가 석자다.]
- ③ 苦盡甘來.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 ④ 人心朝夕變.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 ⑤ 青松丈夫心.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과 같다.]
- ⑥ 仁, 人之安宅也.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 ⑦ 天地者, 萬物之逆旅.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다.]

(나) 主述目 構造

주술목 구조의 서술어는 동사로써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목적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으로써 동사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다.

보기

1 3 2

- ① 臣事君.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
- ② 德潤身.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 ③ 知者樂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 ④ 智者不失人.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 ⑤ 新沐者, 必彈冠.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 쓴다.]
- ⑥ 新浴者, 必振衣.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
- ⑦ 一日之狗, 不知畏虎.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울 줄을 모른다.]

(다) 主述補 構造

주술보 구조의 서술어는 보어의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며,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또는 한정하여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주는 성분이다.

보기

1 2 4 3

- ① 少年易老. [소년은 늙기가 쉽다.]
- ②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사납다.]
- ③ 勤爲無價之寶. [부지런함은 값을 매기기 어려운 보배이다.]
- ④ 百聞不如一見. [백번 듣는 것은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 ⑤ 成功之難如登天. [성공의 어려움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
- ⑥ 失敗之易如燒毛. [실패의 쉬움은 털을 불사르는 것과 같다.]

(라) 主述目補 構造

앞서 보았던 모든 구조가 종합된 것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새기는 순서는 주어를 먼저 새기고, 다음으로 목적어, 보어(목적어와 보어는 순서가 바뀌어도 됨), 서술어 순서로 새긴다.

보기

1 4 5 2 3

- ① 堯以爲舜聖. [요임금은 순임금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 ② 世人謂栗谷大學者. [세상 사람들은 율곡을 대학자라고 말한다.]

### 3) 문장의 종류와 句形

문장의 유형을 敘述語의 性質에 따라 분류하면 判斷文, 敘述文, 描寫文으로 나눌 수 있으며, 分句의 유무에 따라 單文, 複文으로 나뉘며, 話者가 나타내는 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平敘文, 否定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서술어의 성질에 의한 분류

##### (가) 判斷文

판단문은 주로 명사나 명사류를 서술어로 하여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을 진술하는 문장으로 한 사물의 성질, 특징, 범위 등을 판단하고 설명한다.

보기

- ① 子誠齊人也. [그대는 진실로 제나라 사람이다.]
- ② 惻隱之心, 仁之端也.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다.]

##### (나) 敘述文

사람이나 사물의 활동이나 경력, 동작의 시종 등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주로 動詞가 서술어로 사용되어 주어의 행위를 서술한다.

보기

- ① 氣蓋世. [기운이 세상을 덮다.]
- ② 齊人伐燕.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쳤다.]

##### (다) 描寫文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으로, 주로 形容詞가 서술어로 사용되어 주어의 상태를 묘사한다.

보기

- ① 山氣日夕佳. [산의 기운은 해질녘이 아름답다.]
- ② 舉世皆濁我獨清. [온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만 맑다.]

## 나) 分句에 의한 분류

### (가) 單文

단문은 대개 하나의 주술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문장 중에 두 개 이상의 주술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의 한 문장이 다른 것들을 자신의 성분, 즉 주어·서술어·목적어 등으로 삼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단문이다.

보기

- ① 子路宿於石門. [자로가 석문에서 묵었다.]
- ② 楚威王聞莊周賢.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명하다는 것을 들었다.]

### (나) 複文

복문은 문장 중에 두 개 이상의 주술구조가 있으면서,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성분이 아니고, 각각 문장을 이룬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복문은 다시 문장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聯合複文과 문장 간에 主從의 관계를 맺는 偏正複文으로 나눌 수 있다.

보기

- ①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우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조화만 못하다.](聯合複文)
- ② 心安, 茅屋穩.  
[마음이 편안하면, 띠로 지은 집도 편안하다.](偏正複文)



## 다) 화자의 어기에 의한 분류

### (1) 平敍文

話者が 聽者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보기 氷, 水爲之而寒於水.

[얼음은 물로 그것을 만들지만 물보다 차다.]

### (2) 否定文

부정문이란 동작, 상태, 혹은 사물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부정문 속에는 반드시 부정사가 있으며, 부정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1) 不, 弗: 의미상 일반적인 부정을 나타내며, 구분하자면 不은 동사와 형용사를, 弗은 주로 동사를 부정한다.

보기

①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② 雖有嘉肴, 弗食, 不知其旨也.

[비록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

(2-2) 無: 존재의 부정에 사용되어 ‘~이 없다’의 뜻을 지닌다.

보기

① 天無二日.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다.]

② 地無三尺平. [땅에는 3자 평평한 땅이 없다.]

(2-3) 毋, 勿, 莫: 금지의 뜻으로 사용되어 ‘~하지 말라’의 뜻을 지닌다.

보기

① 凡諸卑幼 事無大小 毋得專行 必咨稟於家長.

[무릇 모든 어린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멋대로 행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쭙어야 한다.]

②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③ 讐怨莫結 路逢狹處難回避.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돌아서 피하기 어렵다.]

(2-4) 未: 주로 아직 일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아직 ~이 아니다'의 뜻을 지닌다.

**보기** 人於未仕時 惟仕是急 既仕後 又恐失之.

[사람이 아직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직 벼슬하는 것만을 급한 것으로 여기고, 이미 벼슬한 후에는 또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2-5) 非: 주로 판단문에 사용되며, '아니다'의 뜻을 지니며, 不, 弗과 다른 점은 非는 뒤에 명사가 온다.

**보기** 子非魚, 安知魚之樂?

[그대는 물고기가 아니면서,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2-6) 이중부정: 부정사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강력한 긍정을 나타낸다.

**보기**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

[어린아이도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지 않는다.]

(2-7) 부분부정과 전체부정: 부분부정은 「부정사+부사」의 형태이며, 전체부정은 「부사+부정사」의 형태이다.

**보기** 華大者 未必有其實.

[꽃이 큰 것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것만은 아니다.]

(2-8) 不敢과 敢不: 不敢은 '감히 ~하지 않다'의 뜻이고, 敢不은 '감히 ~하지 않겠는가?'로 반어형을 나타낸다.

보기

① 不敢請耳，固所願. [감히 청하지 못했지만, 진실로 원하던 것입니다.]

② 行父母之遺軀，敢不敬乎?

[부모가 남겨 주신 몸을 움직이는데, 감히 공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부정사는 자기 본래의 뜻을 지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뜻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보기

① 無欲速，無見小利.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 (無=勿)

② 內省而不疚，夫何憂何懼?

[안으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으면, 대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不=無)

(3) 疑問文

話者が 聽者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가 있다.

(3-1) 의문사인 何, 誰, 安, 孰, 胡, 焉, 奚, 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문대명사 참조

(3-2)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인 乎, 哉, 耶(邪), 與(歟)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조사 참조

(3-3) 의문사+他詞인 何以, 何爲, 如何=何如, 奈何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①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자유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의 효라는 것은 봉양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모두 길러줌이 있을 수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별하겠는가?”하셨다.]

② 子貢問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

[자공이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남에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③ 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

[남의 착하지 않음을 말하였다가 마땅히 뒷근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3-4) 「의문사+의문의 어조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

**보기** 古云 知得一分 行得一分 徒言而不行 言何能中理乎.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가지를 알면 그 한 가지를 행해야 한다.” 하였으니, 다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이 어찌 이치에 맞을 수 있겠는가?]

(4) 反語文

반어문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 語勢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을 빌어 反問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의문문과 형태는 같다.

**보기**

①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워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② 燕雀安知鴻鵠之志哉?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5) 使動文

사동문은 主動者가 客體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5-1) 使役 助動詞인 使, 遣, 命, 令, 教, 俾 등을 사용한 경우

(5-2) 동사인 勸, 召, 助, 屬 등을 사용하여 의미상 사역의 뜻을 가지는 경우

**보기**

① 孫權將呂蒙, 初不學, 權勸蒙讀書.

[손권의 장수 여몽은 처음에 배우지 못했는데, 손권이 여몽에게 권하여 글을 읽게 했다.]

② 予助苗長. [나는 모가 자라도록 도왔다.]

(5-3) 사역의 뜻을 갖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용상 使役의 뜻을 지니는 경우

(6) 被動文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주동자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받게 되는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6-1)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被, 見, 爲 등을 사용하는 경우

(6-2) 「타동사+於, 于, 乎」의 경우

(6-3) 「爲A 所B」: A에게 B되다

(6-4) 피동의 뜻을 갖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용상 피동의 뜻을 지니는 경우

(7) 假定文

가정문은 어떤 조건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서술하는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7-1) 假定詞인 若, 如, 苟, 使, 設, 設使, 若使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①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만약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② 苟子之不欲, 雖賞之, 不竊.

[만약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그들에게(백성들에게)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③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왕께서 만약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④ 若使湯武不遇桀紂，未必王也.

[만약 탕왕과 무왕이 걸왕과 주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왕도정치를 하지만은 못했을 것이다.]

(7-2) 문장 중간에 則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何擇焉?

[왕께서 만약 그 소가 죄가 없이 죽는 땅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면, 소와 양을 왜 가리셨습니까?]

(7-3) 雖나 縱을 사용하여 '비록(설령)~일지라도(~한다 하더라도)'의 뜻을 가지는 경우

**보기** 縱江東父兄憐而王我，我何面目見之?

[설령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7-4) 假定詞나 則이 없어도 의미상 가정문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

**보기**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8) 抑揚文

억양문은 서술하고자 하는 것을 잠시 놓아두었다가, 먼저 정도가 낮은 것부터 서술한 다음, 나중에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 형태로, 주로 「況……乎(哉)」의 형태이며, 의미는 '하물며……에 있어서랴'로 풀이한다.

**보기**

① 天子不召師，而況諸侯乎?

[천자도 함부로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제후에 있어서랴?]

② 富貴則親戚懼之，貧賤則輕易之，況衆人乎?

[부귀하면 친척들도 그를 두려워하고, 빈천하면 그를 업신여기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라?]

(9) 比較文

비교문은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그 상태나 성질의 정도나 우열을 나타내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9-1) 대등비교: ‘如, 若, 猶’를 사용

보기

① 朱文公曰 守口如瓶 防意如城.

[주문공이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것이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막는 것이 성과 같이 하라.”하였다.]

② 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9-2) 열등비교: 「A不如(=不若)B」 ‘A는 B만 못하다’

보기

① 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② 弟子不必不如師. [제자가 반드시 스승만 못한 것은 아니다.]

(9-3) 우등비교: 「형용사+於, 于, 乎」 ‘~보다 더 ~하다’

보기

① 人固有一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

[사람은 본래 한 번 죽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경우는 기러기털보다 가볍다.]

② 孔子曰 凡人心險於山川 難於知天 天猶有春夏秋冬旦暮之期 人者厚貌深情.

[공자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위험하며, 하늘을 아는 것보

다 어렵다. 하늘은 오히려 봄·여름·가을·겨울·아침·저녁의 기약이 있으나, 인간은 용모를 두터이 하고 마음을 깊이 (감추어) 둔다.”하였다.]

(9-4) 최상비교: 「莫+형용사+(於, 于, 乎)」 ‘~보다 더 ~한 것은 없다’  
「莫如」 ‘~만한 것이 없다’

**보기**

① 孝子之至, 莫大於尊親.

[효자의 지극함은 아버이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② 養心莫善於寡欲.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③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조정에서는 벼슬만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만한 것이 없다.]

(10) 選擇文

선택문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 나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0-1) 「與其A, 不若B」: A하는 것은 B하는 것만 못하다

**보기** 與其富而畏人, 不若貧而無屈.

[부유하면서 남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하면서 비굴함이 없는 것만 못하다.]

(10-2) 「與其A, 孰若B」: A하는 것이 어찌 B하는 것만 하겠는가?

**보기** 與其有樂於身, 孰若無憂於其心?

[육체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어찌 그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10-3) 「寧A, 不B」: 차라리 A하지 B하지 않겠다

**보기** 寧爲鷄口, 無爲牛後.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되지,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

(10-4) 「A孰與B」: A와 B를 비교해서 어느 편이 나은가?

**보기** 坐而待亡, 孰與伐之?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그를 공격하는 것을 비교해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

(11) 限定文

한정문은 사물이나 행위의 범위나 장소를 한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1-1) 부사인 唯, 惟, 只, 但, 特, 獨, 徒, 直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① 子曰 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

[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공손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 하면 원망한다.]

②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항상 된 생산이 없어도 항상 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③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들 말소리만 들릴 뿐이다.]

④ 將取姑與之術 特老氏言之耳 吾儒則曰讓以得之.

[“장차 취하려면 우선 주어라.”라고 하는 술수는 노자의 말일 뿐이다. 우리 유학에서는 “겸양으로써 그것을 얻는 것이다.”라 하였다(成大中 『青城雜記』)]

(11-2) 어조사인 耳, 已, 爾, 而已, 而已矣, 耳矣 등을 사용하는 경우

(12) 推量文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率, 大率, 庶(=庶乎), 幾, 庶幾, 或, 恐, 蓋 등의 부사가 사용된다.

보기

① 蓋有不知而作之者, 我無是也.

[행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이러한 일이 없다.]

② 學者必由是而學焉, 則庶乎其不差矣.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서 배운다면, 아마 차질이 없을 것이다.]

\* 「其~乎」: 아마 ~일 것이다.

보기 始作俑者, 其無後乎!

[처음 나무 인형을 만든 사람은 아마 후손이 없을 것이다.]

(13) 命令文

話者が 聽者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勿, 無, 請’ 등 금지 또는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기

① 臨難無苟免. [어려움에 임해 구차히 면하려 하지 마라.]

② 非禮勿視, 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14) 感歎文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문장 앞에 ‘嗚呼, 噫’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乎, 矣, 哉’ 등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를 문장 끝에 사용한다.

보기

①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오래 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뵈지 못한 것이!]

② 噫! 甚矣! 其無愧而不知恥也.

[아! 심하구나. 부끄러워함이 없고 수치를 알지 못함이여!]

### (15) 倒置文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語順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15-1) 먼저 서술어가 감탄을 표시하거나, 서술어가 의문사인 경우에 前置되어 감탄이나 의문의 어기를 강화한다.

보기

① 賢哉, 回也. [현명하구나! 안회여]

② 誰歟, 哭者? [누구나, 우는 사람이?]

(15-2) 다음은 목적어의 도치이다. 술목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곧 아래 보기 ①과 같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②과 같이 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등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보기

① 王者誰謂? 謂文王也

[왕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문왕을 이르는 것이다.]

② 我勝若 若不吾勝 我果是也 而果非也邪.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옳고 그대가 과연 그른 것인가?]

(15-3) 끝으로 「목적어+之+서술어」, 「(惟)+목적어+是+서술어」의 경우이다.

보기

① 句讀之不知, 惑之不解.

[구두점을 알지 못하고,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다.]

② 人於未仕時 惟仕是急.

[사람이 아직 벼슬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직 벼슬하는 것만을 급한 것으로 여긴다.]

\* 술보 구조의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 술보 구조의 어순을 바꾸어 보어를 서술어의 앞으로 위치를 옮기면 보어가 부사어로 그 성분이 변한다.

보기

① 智伯以國士待我.

[지백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以國士'가 부사어)

② 智伯待我以國士.

[왕이 국사로 나를 대우하다.] ('以國士'가 보어)

#### 4) 漢文의 修辭

修辭란 주제의 상황에 따라 어휘, 구문, 표현 수법을 운용하여 사상과 내용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말한다. 수사 방법을 운용하고 창조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修辭學이라 한다. 한문 문장은 다채로운 방법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문에서의 修辭法은 문장의 표현과 의사전달의 효과에 착안하여 문장의 감상을 돕는 것으로 음운 효과를 고려한 押韻과 平仄, 文體, 그리고 표현기법 등을 들 수 있다. 한문 문법은 문장의 구성 원칙에 입각하여 문장의 독해를 돕는 것이고, 한문 수사는 문장의 표현효과에 착안하여 문장의 감상을 돕는 것이다. 한문 문법과 한문 수사법은 詩文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相補相生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문 작품 안에는 한문 문법의 각도로 바라볼 때 불완전하고 어색한 표현이라 생각되는 문장이 한문 수사법의 시각으로 감상할 때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

### (가) 比喻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수법이다. 比喻는 사실 기술이 주가 되는 散文보다는 추상적 정서를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韻文에서 특히 자주 구사되어 독특한 표현 효과를 얻는 修辭의 핵심이다.

#### 보기

- ① 口如含朱丹. [입은 붉은 단사를 머금은 듯하다.]
- ② 一人之生, 似朝露耳. [사람의 일생이 아침 이슬과 같다.]
- ③ 君子之交, 淡如水. [군자의 사귄은 담박하듯이 물과 같다.]
- ④ 淡白梨花面. [해맑기는 배꽃 얼굴이다.]

### (나) 對偶

對偶는 본래 韻文에서 비롯된 것으로, 字數와 句法이 서로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어구의 표현을 이용하여 상반되거나 상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對仗이라고도 한다.

#### 보기

- ① 天高日月明, 地厚草木生.  
[하늘은 높아 해와 달 밝고, 땅은 두터워 초목이 자란다.]
- ② 良藥, 苦於口而利於病, 忠言, 逆於耳而利於行.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 ③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그 울음소리는 구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그 말은 선하다.]
- ④ 月白雪白天地白, 山深夜深客愁深.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온 세상이 희고, 산이 깊고 밤이 깊으니 나그네의 시름도 깊다.]

#### (다) 誇張

誇張은 상상력을 운용하여 사물의 특징을 확대하고 장황하게 꾸미는 방법으로, 표현상의 필요에 의하여 고의로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사람, 사물, 일에 대하여 확대 혹은 축소하여 묘사한 것을 말한다.

##### 보기

① 壯士喊聲，天地震動. [장사의 함성에 천지가 진동하였다.]

② 積屍成山，流血成川.

[쌓아 놓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③ 飛流直下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

[날아 곧장 떨어지길 삼 천척이나 하니, 은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라) 倒置

앞서 倒置文에서 보았듯이, 뜻을 돌출시키고 語氣를 순하게 하며 성음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반적인 언어 순서를 바꾸어 놓는 방법이다.

#### (마) 連鎖

주로 對偶를 이용하면서 앞의 어휘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여 쇠사슬(鎖) 잇듯이 이어서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내용과 형식에서 서로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앞과 뒤에서 맞물리게 하는 방법이다.

##### 보기

① 天時不如地理，地理不如人和.

[하늘의 시기는 땅의 이로움만 같지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이 화합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② 學業莫先於究理，究理莫要於讀書，讀書只在精而勤耳.

[학업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보다 앞섬이 없고, 궁리는 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독서는 다만 자세하고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③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르고, 도를 닦는 것

을 교라 이른다.]

(바) 漸層

표현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면서 맨 마지막을 가장 강하고 중요한 어구로 끝맺는 방법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강한 호소력을 준다. 유사한 구문을 누적하여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 連鎖와 비슷하나, 연쇄는 對偶를 사용하는 데 비하여, 점층은 반드시 對偶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① 一年之計莫如種穀，十年之計莫如樹木，百年之計莫如教子.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0년의 계획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② 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修，身修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

[사물의 이치가 이룬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사) 重疊

동일한 글자나 구를 두세 번 같은 자리에 쓰는 방법으로 反復이라고도 하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보기

①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② 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

[내 노인을 노인으로 여겨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여겨 남의 어린이에게 미친다.]

③ 是是非非謂之知 非是是非謂之愚.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한다.]

④ 窓外雨蕭蕭, 蕭蕭聲自然. 我聞自然聲, 我心亦自然.

[창 밖 쓸쓸히 내리는 비, 쓸쓸한 빗소리 자연스럽네. 자연스레 나는 소리 들으니, 내 마음 또한 자연스럽네.]

⑤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하였다.]

⑥ 大德, 必得其位, 必得其名, 必得其壽.

[큰 덕은 반드시 지위를 얻고, 반드시 명성을 얻고, 반드시 수명을 얻는다.]

\* 이와는 반대로 옛사람들은 글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글자를 고의로 바꾸는 일도 많았다. 이것을 變文避複이라고 한다. 산문의 글쓰기에서는 특히 주요 글자의 중복을 꺼렸다.

#### 보기

① 秦孝公據崤函直固, 擁雍州之地, 君臣固守, 以窺周室, 有席卷天下, 包舉宇內, 囊括四海之意, 并吞八荒之心.

[진효공은 효와 함의 굳센 형세를 의지하고 옹주의 땅을 끼고서, 군주와 신하가 굳게 지키면서 주왕실을 엿보아, 천하를 석권하고 우주 내를 다 들어 감싸며, 사해를 주머니 속에 묶어 두려는 마음과 팔황(사방과 우주)을 한꺼번에 삼키려는 마음이 있었다.]

\* 여기서 ‘據崤函直固’와 ‘擁雍州之地’는 같은 구문이기 때문에 據를 擁으로 바꾸었으며, 席卷·包舉·囊括·并吞은 모두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였다. 또한 天下·宇內·四海·八荒 역시 같은 의미인데, 중복을 꺼려하여 고의로 표현을 바꾸었다.

#### (아) 比較

앞서 比較文에서 보았듯이, 두 종의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사물, 혹은 동일한 사물의 두 가지 같지 않은 방면을 가지고 대조하는 것으로 語義가 선명해지는 표현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劣等比較, 優等比較, 最上級比較가 있다.

#### (자) 省略

한문은 문장 안에서 번잡하거나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



용일 경우에 가능하다.

**보기**

① 原思爲之宰，與之粟九百，( )辭.

[원사가 가신이 되었는데, 그에게 곡식 9백을 주자, (원사가) 사양하였다.]  
(주어의 생략)

② 子曰，躬自厚( )而薄責於人，則遠怨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목적어의 생략)

③ 司馬牛憂曰，人皆有兄弟，我獨亡( ).

[사마우가 걱정하면서 말하길,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이 홀로 (형제가) 없구나.”] (보어의 생략)

④ 一鼓作氣 再( )而衰 三( )而傳.

[첫번째 북을 치면 사기가 진작되고, 두 번째 (북을 치면) 사기가 쇠퇴하고, 세 번째 (북을 치면) 사기가 빠져버립니다.](서술어의 생략)

**(차) 互文**

둘 이상의 구를 나란히 하여, 한 쪽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다른 쪽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통합된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을 말한다.

**보기**

① 天長地久=天地長久.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 하늘과 땅을 길고 오래다.]

② 不以物喜，不以己悲=不以物與己喜悲.

[외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외물과 자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카) 諷諭**

본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기 불편하거나 혹은 형상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故事를 빌려 諷刺나 訓戒의 뜻을 담는 방식이다. 寓言故事가 여기에 속한다.

보기

- ① 守株待兔. [그루터기를 지켜서 도끼를 기다린다.]
- ② 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기다.]